

5·18 광주시민과 함께한 미국평화봉사단원들 재조명해야

단원 4명 미 대사관 철수 명령 어기고 시민 돕고 참상 알리기 노력 부상자 이송·시신 수습에 외신기자 통역...美정부 시각 바꾸기 일조 美 국무부 기밀문서 5월 '어리석었다'→6월 '자랑스럽다'로 기록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머물며 광주의 참상을 외부로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미국 평화봉사단(Peace Corps) 단원(광주일보 2019년 5월 14일자 1·3면)들의 활동 과정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인만으로 구성된 단원들은 당시 미국 정부의 철수명령을 따르지 않고, 시신 수습을 돕거나 외신기자 통역을 지원하며 끝까지 광주시민과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활동은 당시 광주 상황을 폭동으로 봤던 미국 정부의 시각을 바꾸는 데도 일조했다는 게 5·18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14일 5·18기념재단과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등에 따르면 평화봉사단원 출신 팀 완버그(Tim Warnberg·1993년 작고)가 지난 1987년 작성한 논문 '광주항쟁: 목격자의 견해'(The Kwangju Uprising: An Inside View)는 5월 항쟁 당시 광주에 있었던 평화봉사단원 4명의 행적을 서

술하고 있다. 1979년 입국한 평화봉사단원들은 1982년까지 광주, 나주, 목포 등지에서 장애인 시설 봉사나 한국어인 대상 영어교육, 외신기자 통역 분야에서 활동했다. 5·18 당시 광주에 있었던 단원들은 팀 완버그, 데이비드 돌린저(David Dolinger), 주디스 체임벌린(Judith Chamberlin), 폴 코트라이트(Paul Courtright) 등 4명이다. 단원들은 항쟁 초기만 해도 두려움 때문에 계엄군에게 구타당하고 목숨을 위협받는 광주시민을 제대로 돕지 못했으나, 피해자들이 갈수록 늘어나자 부상자 이송을 돕는 등 광주시민과 함께 항쟁에 참여했다.

팀 완버그와 주디스 체임벌린은 전남대 병원과 기독병원, 보건소 등 의료시설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다. 또 데이비드 돌린저와 폴 코트라이트는 미국 '타임지'의 로빈 모이어, AP통신의 테리 앤더스 기자 등과 함께 광주 곳곳을 다니며 광주 참상 취재를 지원했다. 당시 일부 광주시민은 이들에게 "미국이 광주 사람을 사살하는 것을 허가한 것이냐"고 항의하는 등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대다수의 시민들은 먹거리를 나눠주는 등 단원들을 보호해줬다고 한다. 광주시민의 깊은 정을 느낀 단원들은 5월 25일 "즉시 광주를 떠나라"는 미국 대사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광주시민을 돕기

로 결정했으며, 5월 27일 오전 폴 코트라이트씨를 제외한 단원 3명은 피가 낭자한 도청에 들어가서 시신을 수습하는 등 끝까지 광주시민과 함께 했다. 당시 폴씨는 광주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찾아간 상태였다. 단원들에 대한 이야기는 미국 기밀문서에도 등장한다. 미국 국무부에서 1980년 5월 25일 작성한 '한국 감시단 상황보고 제 7호'(3급 비밀)에는 "광주 잔류 인원은 광주를 떠나라는 미국 대사의 강력한 경고를 어리석게도 무시하고 철수하라는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나와있다. 주한미국대사관이 1980년 6월 10일 미국 국무부장관에게 보낸 '광주 소요(騷

擾)에 대한 거주자의 견해'(3급 비밀)를 살펴보면 "월요일(5월 19일) 평화봉사단원들은 비폭력 개입을 통해 좋은 미국인의 이미지를 얻었음"이라며 "미국인으로서 우리는 평화봉사단원들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기록했다. 이 문서는 미 대사관이 '가장 균형 잡힌 5·18 기록이자 분석'이라고 평가한 자료다. 5·18연구자들은 "외신기자뿐 아니라 평화봉사단원들도 참상을 알리고 광주를 돕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다"며 "평화봉사단원들이 모국에 남긴 자료와 증언 등을 확보하면 5·18진상규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주남마을 위령비 헌화하는 어린이들 14일 오전 광주 동구 주남마을 위령비 앞에서 열린 '기억이 니은이축제'에서 어린이들이 위령비에 헌화하고 있다. 올해로 6회를 맞는 축제는 5·18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주남마을공동체가 주관하는 마을축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담양 11공수 '전두환 비석', 5·18자유공원 이전키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무차별한 진압 작전을 수행한 제11공수여단 정문 앞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광주 5·18자유공원으로 옮겨진다. 광주시와 국방부, 5월 단체 관계자는 14일 광주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11공수여단의 부대 준공기념석을 광주 서구 5·18자유공원 내 영창 인근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

다. 준공 기념석은 1983년 11공수여단이 담양으로 부대를 이전하면서 세워진 것으로 '선진조국의 선봉 대령관 전두환'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5월 단체는 해당 비석을 5·18민주화운동과 연관된 상징물로 보고 이전을 추진해 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280억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조직 13명 적발

국내와 중국을 오가며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1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등 혐의로 운영총책 김모(28)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중업원 장모(23)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표통장을 개설해 이들 조직

에 빌려준 허모(27)씨 등 3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7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목포와 중국 심천에 사무실을 두고 시설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SNS 광고 등으로 모집한 회원들에게 280억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음주 사고 현장 벗어난 50대, 저수지서 숨진 채 발견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농로 옆으로 빠뜨린 50대 남성이 사고 현장을 벗어난 뒤 저수지에 빠져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0시 50분께 광주시 북구 금곡동 한 저수지에서 이모(58)씨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함께 낚시하던 지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저수지를 수색해 숨진 이씨를 찾아냈다. 이씨는 지난 12일 낮부터 지인 3명과

저수지에서 낚시하며 술을 마셨고, 같은 날 오후 8시 20분께 자신의 1t 포터차량을 운전하다 저수지로부터 150여m 떨어진 농로에 빠뜨리는 사고를 냈다. 이후 출동 요청을 받은 차량 견인기는 "현장에 도착해 이씨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함께 낚시하던 지인들은 이씨가 음주사고를 내고 자리를 피한 것이라고 짐작하고 기다렸지만 13일 오전까지 나타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보고 싶다'는 여친 전화에 자해 뒤 전역한 훈련병 유죄

현역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의로 자신의 십자인대를 파열시킨 육군 훈련병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황영희)은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훈련소를 벗어날 목적으로 지난해 4월 22일 새벽 5시께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생활관 내 1.5m 높이 층기보관함 위에서 뛰어내려 자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해 전날 여자친구와의 전화통화에서 "보고 싶어 힘들다"는 말을 듣고 생활관으로 돌아와 동료들이 잠든 새벽에 자해를 시도했으며, 국군병원에서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비전공상자로 전역했다. A씨는 동료 훈련생으로부터 십자인대를 끊어지게 하는 요령과 함께 공익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스마트폰 채팅 이용 형사라 속여 강간하고 돈까지 요구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자신을 형사로 속이고 강간을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 ○·박씨는 경찰에서 "양씨가 북부서 강력계 형사다. 성매매 처벌을 받지 않으려 성관계를 하자"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양씨는 박씨와 헤어진 직후 카카오톡을 통해 '기존 성매매 사건을 무마하려면 50만원을 보내라'고 요구했으며, 돈을 마련하지 못한 박씨가 고민 끝에 신고를 해왔다"고 설명.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스마트폰 채팅 이용 형사라 속여 강간하고 돈까지 요구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A 타입 식용달팽이 사육장(건물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B 타입 미래형 100KW 550만원(예상) 현금투자대비(년 40% 수익가능) **최단 2년6개월 자금회수가능**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암 신북면 잔여분 5기 (선로 대기중)
- 영광 흥농 잔여분 3기

2019년 8~10월 준공예정

모듈·LG·한화큐셀(단결정) 인버터·ABB(이태리)·카고(독일)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 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87-8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80% 용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2018. 5. 1. 대통령령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전·답 가능)

한전과 20년 장기 계약 안정적 투자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부지 매입합니다(전·답가능)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지!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전국대표 ☎ 1588-1543 · 010-3645-1479